



#### 록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2015년 1월 5일 604-812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263(괴정동) TEL.FAX.겸용 051-782-9174 E-mail, ds5ean@naver.com

HP. 010-6504-6510

계간18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 독도소식지 18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 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 금과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소식지 카페서 볼 수 있음.

#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 오늘도 독도를 생각하며



임기병 교수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지 녔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질 곡의 역사였다. 민초들은 배고 픔 과 전쟁의 난리에 하루도 편 히 잘 수 없었다. 그 민초들의 아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 는가만, 오늘날 우리가 배불리 먹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보 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력

은 더 쇠퇴해 가는 데... 걱정이 앞선다. 예로부터 농부 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상농(上 農)이요. 상농은 밭에 풀이 나기도 전에 부지런히 잡 초가 날 여지를 없애서 근원부터 막아버린다. 자연히 농사는 풍년이 되고 그 가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일생 을 보낸다. 두 번째 유형은 중농(中農)이다. 중농은 잡 초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제거한다. 세 번째 유형은 잡초가 번성하여 농작물이 죽게 생겨도 잡초를 제거 하지 않는다. 결국 농사는 엉망이 되고 집안 식구들 모두가 어렵게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국가에도 세 가지 국가가 있다. 상류국가(上流國家), 중류국가(中流國家), 하류국가(下流國家).... 과연 우 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문해 보고 싶다. 상농 (上農), 중농(中農), 하농(下農)의 형태를 정리하자면 그러할 진대, 우리나라를 농부로 치면 어디에 속하는 가? 우리는 이미 100년 전 하류국가(下流國家)의 쓴맛 을 보았다. 하류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고달픈 삶을 살 아간다.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 이 되고, 기관이 모여 신체가 되듯이, 대한민국도 개 개인이 모여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나의 세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암세포가 되면) 조직전체를 병들 게 하고 결국 신체 전체를 죽게 한다. 국가도 개개인 국민들의 정신력이 그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든다. 한 사람 한사람이 상농(上農)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류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하루에 한 번씩 상농(上農)의 마음으 로 "독도"를 생각하자!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독도" 가 항상 자리 잡고 있는 한 "독도"는 영원히 우리 땅 이 될 것이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자문위원 경북대학교 원예학과 임기병 교수

# 후원금 주신 분

박정삼 최창구 예수정 강현정 부산시동래구석사북로4 부산부산시금정구서3동 경남 양산시평산동 부산시연제구연산9동

30.000원 10.000원 7.000원 14.000원

# 외교부, '독도 해저 지형 측량'도 반대

입수 문건 확인…입도 시설 외 한일 갈등 빚은 측량 도반대 김종민기자 jmkim@hankooki.com

수정시간: 2014.11.16 17:02:22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 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 지형 측량에도 반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 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 부는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했는데 외교부가 여기에 반대 입장 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 시행 계획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뿐 아니라 독도 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울릉공항 건설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10개 기관이 추진 중인 34개 과제가 포함 돼 있다. 정부는 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

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이 계획에 대한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 정에서외교부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 도 주변 해저 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 고 기록돼 있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다. 멀티빔, 항공라이다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 저 지형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가 나머 지 32개 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 지 않았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 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 은 찬성했고 외교부는 반대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부 는 이같은 서면 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센 터 신축 과제는 외교부의 반대로 지난 1일 관계장관회 의에서 백지화됐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 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독도 해저 지형 측량 작업에 반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이 문제 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도 분쟁지역 표기'



미 CSIS '독도 분쟁지역 표기' 논란 동영상 장면 삭 제(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는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 http://amti.csis.org)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장면들을 모두 뺐다. 당초 동영 상에는 독도를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 島〉) 열도와 함께 분쟁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 한 지도를 실었다(왼쪽 사진). 그러나 연합뉴스가 관 련 보도를 한 이후 해당 지도에서 붉은색 표기 자체를 삭제했다(오른쪽 사진).(출처: http://amti.csis.org)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의 대표 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던 동영상 내용을 삭제했다. CSIS는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가 나온지 이 틀만인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아시아해양 투명성이니셔티브'(AMTI · http://amti.csis.org)에



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장면들을 모두 뺐다. CSIS는 우선 독도를 센카쿠(尖 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함께 분쟁 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한 장면에서 붉은색 표기 자체를 삭제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 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는 글과 독도 전경 사 진도 뺐다. CSIS 한국실은 이날 언론 성명을 내고 "AMTI 웹사이트는 대한민국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 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독도와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 의 성명 등 공식 발표된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고 밝 혔다. CSIS 한국실은 다만 "AMTI 웹사이트는 아시 아 지역 내 현존하는 여러 해양 주권 관련 사안의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정책용도로 개설된 것"이 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분쟁지역(Hot Spot)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SIS 한국실은 독도표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정식 공인한 리앙쿠 르 암초(The Liancourt Rock)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r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 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1/15 11:05 송고

비영리 단체: 독도사수연합회

#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결의대회(자수정동굴)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정부독도청책항의집회 본회기 든분 인천지회장



대회장이신 해룡스님 축사 (송운사 미타 大 석굴)



이규정 전 국회의원. 약선 새마을 건립 준비위원회. 축사



정의사회시민연대 총재님께 감사장 태극기드림



한국독도문학작가협회중앙회 안태봉회장님축사



독도사랑문학회 우명주 회장님 축사



지회장 임명을 받은 울산지회장 경기도지회장



본회 장현섭 고문님께 위촉장을 드림



단체사진 밑에 여러분 올라오지 않아서..

2014.11.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수정 동굴 안에서 "독도사수를 위한 시민. 유관단체 결의대회"를 하면서 무대사정으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 나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노력을 합니다. 독도를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독도는 마음 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독도가 지켜지나? 를 생각합시다.

寒寒寒 독도소식지는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대 카페에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寒寒寒

# 독도사수연합회 최정헌 상임고문입니다.



존경하는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및 가족여 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사수연합회 상임고 문 최정헌 입니다. 항상 본 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관계 자와 국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독도사수연 합회 이상훈 회장님의 노고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일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 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정통성을 짓밟고 있는 작금의 독도 에 대한 일본 만행을 국민모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독도는 우리나 라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엄연한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천 인공노할 일본은 지금 독도를 빼앗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음모술 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상훈 회장님 같은 애국자가 이끄시 는 독도사수연합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습 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독도탈취를 꿈꾸는 일 본의 파렴치한 아심을 꺾고 국제적인 경거망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각계각층의 독도사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많은 협 조와 지원만이 독도를 지키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독도사수에 대한 범국민적 결의와 뜨거운 애국심을 강조하며 독도시수연합회 회원모두의 건승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광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울산광역시지회장 정종수입니다.



갑오년도 한 장의 달력만 남긴 테 을이년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 모의 종소리가 어둠을 뚫고 축복 을 내려주는 즈음에 '독도사수연 합회 울산지회'를 언양에 위치한 자수정동굴에서 독도사수를 위한 시민 유관단체 결의 대회 및 지회 창립식을 갖게 된 것을 더욱 뜻 깊 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훈

회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의 격려와 환영 속에 성황리 에 치를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독도는 역 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의심할 여지없는 명백한 우리 의 고유 영토입니다. 터무니없게도 일본은 망말과 침략야 욕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문제도 절대 사과를 않고 있으며 심지어 초, 중, 고 교과서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이에 독도사수연합회 울산지회는 독도에 대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우리의 의지와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 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으며 그 뜻 과 힘을 모아 독 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결의의 시안 이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상훈 회장님과 독도사수 연합회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울산지회 정 종 수

#### 경기도지회장 한채훈 입니다.



-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 ·성남투데이 취재기자
- · 스마트성남 기회자 〈상훈〉
- · 보건복지부장관상
  - · 국가보훈처장상

강산이 몇 천 번씩 바뀌어도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 토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결론 을 내리고 저는 자릴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진짜 우리 땅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면 이제는 실 천하면 됩니다. 저는 젊디젊은 20대이자 대학생 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외치시고 지금 까지 지켜와 주신 독도사수연합회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서도 독도사수를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경기도지회 연락처 010-8988-2000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구독신청: TEL FAX 겸용 051-782-9174 H·P 010-6504-6510 독도사수대

####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3편

려해연구소 RYEO HAE INSTITUTE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자꾸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또 유해(有害) 하기까지도 하다"는 그들의 생각은, 경쟁 국가의 계속적인 항의(抗議)와 대항적인 영토주권 주 장을 일단 묵인(默認)하거나 승인(承認)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성립된 영토주권도 결국은 소멸(消滅)되거 나 부정(否定)될 수 있다는 국제법상 권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相對性)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 가 된다.

나. 영토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의 문제 이러한 한국 정부측의 정책적 기조가 근거하고 있는 국제법 법리 에 관한무지(無知)와 이론상의 혼돈(混沌)들이 일본 측을 고무(鼓舞) 하여 독도에 대한 무리하고 공격적 인 영토권 주장을 유도(誘導)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 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국가적 정체성(正體性) 을 정면으로 부인 당하는 이런 사태가 시간을 끌면서 계속되면 될수록 일본과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란 점 점 더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조용히 기 다린다고 해서 한국 정부자신이나 일본 정부 측에 득 이 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독도 문제가 일본에 의해 서 일방적으로 국제재판기관에 제소되고 결국 한국 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 독도 영유권 분쟁 사건을 사법 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이라면 한국은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귀중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적인 지혜 와 신중성을 동원하여 이런 사태에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진정으로 한국정부의 정책적인 의도가 일본정부 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재판기관에 제소하는 단계까지 가지 말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면, 이런 정확한영토적 경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 슨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벌써 나와 있어 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 으며 21세기는 '상호 의존의 시대'이다. 국제사회에 서 각 국가 간의 상관관계가 확대되고 더욱 긴밀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서로의 관계가 확대될수록 저 절로 협력이 순조롭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주 체 간에 욕구들이 충돌하여 갈등과 분쟁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시키려는 각 주 체간의 해결 수단도 그만큼 다양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하겠 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간의 분쟁은 갈등(conflict)→ 긴장 (tension)→위기(crisis)→ 무력충돌(armed conflict)→ 전쟁상태(open war) 등으로 진전되는 하나의 흐름(spectrum)으로 파악된다. 유엔 헌장 제 1조 1항은 유엔의 목적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 기 위하여...평화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 또는 사태의 조정 또는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고 국제법원칙에 따라서 실현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 다. 또 유엔 헌장 제2조 제3항은 "모든 가맹국은 국제 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 지 않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여 야 한다."고 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 러므로 분쟁 당사국은 분쟁의 각 흐름의 국면에서 분 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1세기는 '상호 의존의 시 대'인데,또 동시에「21세기의 국제사회」는 말할 수 없이 '투명한 사회' 이기도 하다.

〈다음호에 계속 독도사수대 에서 전부 볼수 있음〉

#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독도주인은 주인이다. 월드 컵 축구 때 서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 다. 그런데 독도는 관심이 없다. 독도행사에는 1천명 도 잘 모이지 않는다. 독도를 뺏기면 안 되지 할 뿐 지 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 독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 1만 명중 한명 있을까? 독도 지키는 운 동에 별 도움을 못 준다. 할 줄 몰라서 못 한다는 사람 에게 서명운동 하라면 못 한다. 회원가입해서 월 회비 1000원을 내라 해도 못한다. 독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한다. 독도지킴이라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 별로 없다. 당신은 독도 주인이다. 독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은 무얼 하였 느냐? 아무것도 없다. 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다시 생각 해 보십시오. o요? x요? 〈편집자〉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 제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 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있고 사람 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독도를 관광지 만들 어 세계 각국에 한국의 관광지로 홍보하면 더욱 유 리 해진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 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 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 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 표를 의식해서 여 론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 이 된다.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 내주세요. 〈독도사수연합회〉

# 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정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최고유공자로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국내 · 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長7号1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순권	왕	Κ <u></u>	<b>~</b> 4	서명	베기
7					
3					
4					
5					
9					
_					
$\infty$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매구 명장동 477-16) 독도 이상훈 HP: 010-6504-6510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cafe 독도사수연합회 E-mail: ds5ean@naver.com 명장로 ( 보낼곳 607-809 부산시 동래구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비영리 단체: 독도사수연합회

구독신청: TEL, FAX 겸용 051-782-9174 H·P 010-6504-6510

#### 국제공항에 각국어로 독도 자료 전시 하게 하라.

독도를 지키는 운동에 정부나 국영기업체 등에서 협조가 잘 안된다. 독도를 외국인들에게 우리 땅인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전시물을 10개 국어로 만들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글이다. 하나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60cm이다. 김해국제공항에 전시를 하려다 거부 당하여 못하고 있다. 전시물 내용은 아래주소로 오면 볼 수 있다. 허락 하면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 국제공항에 전시하고 싶다. 가능하면 전시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http://dokdomart.byus.net/index4.htm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위의 내용 인터넷 뉴스에 나왔습니다, 성남투데이. 경기종합신문. http://cafe.daum.net/anadok/Aic/436

#### [뉴스쇼 판] '독도 외교'일본에 또 당했다…전전긍긍 외교부



입력: 2014.11.06.22:20 수정: 2014.11.06 22:33

일본이 우리 정부의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설 취소 결정을 외교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 과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할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이 제소할수 있다"고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일본을 의식해 취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당은 '외교적 참사'라며 총리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조선〉

# "독도의 날,달" 이라고 하면 안 된다. "고종황제 독도칙령 기념일"이라 해야 한다.

# 일본의 덫 독도의 날

#### 1.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을 증명 해 주는 독도의 날

고종황제는 1900년에 독도칙령을 만드셔서 115회!

일본은 2005년에 독도날 만들어 10회!

자연보호연맹에서 2007년에 독도의 날 선포하여 8회!

교원 총 연합회에서 2010년에 독도의 날 선포해서 4회!

국회에서 2014년도에 독도의 날 제정하면 1회!

#### 2. 대한민국 고유의 독도영유권을 희석시키는 독도의 날

가짜주인 일본이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독도침략 수치일 시마네현 고시에 근거한 독도 날 제정이

고작인 반면 진짜주인 대한민국은 수많은 독도관련기념일들이 있다.

독도관련 기념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자체가 독도주권국인 대한민국 국민만의 특권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10월 25일만 독도의 날이라고 함으로써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 고유의 독도영유권을 희석시키는 오류를 우리 스스로 범하고 있다.

#### 3. 독도주인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도관련 기념일

이사부의 날(8.3-이사부 기념사업회에서 선포한 날),

안용복의 날(3.1-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날),

독도칙령의 날(10.25-대한민국 독도단체대표들이 주장한 날),

독도대첩기념일(11.21-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에서 선포한 날)

스카핀의 날(1.29-독도가 한국 것임을 연합국이 국제적으로 인정한 날)등 대한민국 국민은 가짜인 일본을 모 방하거나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진품인 수많은 독도기념일을 관련기관에서 제각기 기념함으로써 1년 365일 독도를 한민족의 문화로 심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위는 독도의병대 글입니다.) 2104년 10월25일은 114회 언론에 "독도 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 "칙령기념일"로 기억해야 합니다. 〈독도 이상훈〉

#### "고종황제 독도칙령 기념일"이 무엇인가?

1900년10월25일 울릉도에 관한 명령문(대한제국칙령41호)을 만드셨다. 2일후인 27일에 관보에 게재하여 국제사회에 공포를 하셨다. 국제사회에 대한제국칙령41호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칙령 (勅令)

칙령 제41호(勅令第四一號)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 학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 한 건(件)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 ㅎ 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

정 후 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 후고 군등(郡 等)은 오등(五等)으로 홀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 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 학교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 호 사(事).

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 학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는 철자(七字)로 개정(改正) 학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홀 사(事).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史額)이 미비(未備) 학고 서사조창(庶事草創) 학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 홀 사(事).

제5조: 미비(未備) 호 제조(諸條) 는 본도개척(本島 開拓)을 수(隨) 호야 차제(次第) 마련(磨鍊) 호 사(事).

광무(光武) 4년(四年) 10월 25일(十月二十五日) 어압 (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議政府議政臨時署 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독도사수연합	2	회원	フ	입	신	청서
성	명		생년	생년월일 :					
전 화 (자택)		(자택)	(직장)			(3	(휴대폰)		
주	소	(자택)							우편번호 :
		(직장)							우편번호 :
직업(명)			소속	단체	테:				
E-mail									
참고로 기록 합니다.									
년납 (			월납	(	)		회법	]	자 동 : 이체()
자운	본사	=년 회 (학	합( ) 월납( ) 회 비 자동:이체() ! 회(할수있음)(할수없음) 납 부 수시납:현금()						

"우리 땅 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l 월 일 성명 (印)

독도사수연합회장 귀하

참고사항: 회비는 월1.000원 이상으로 자동 이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원은1만원 이상)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우편번호: 607-80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전화: 051-782-9174. 독도 이상훈 손전화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E-email:ds5ean@naver.com lsh54a@hanmail.net 보내세요.

독도소식지 18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합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까지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후원 하실 분 ▶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